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고 윤 주

김영신¹⁾ 노주선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한림대학교 신경정신과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제는 또래 집단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 집단에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필요조건 중에 하나인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된 변인들, 즉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이 어떠한 경로로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는 지 조사하는 것이었다. 안양 지역 두 곳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36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부모용 K-CBCL, 또래의 수용을 나타내는 학급에서의 인기도와 급우폭력의 피해 경험은 각각 급우의 보고에 기초한 사회측정적 방식과 K-MPNI,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은 아동용 친구관계의 질 측정도구와 자아지각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EM을 적용한 경로분석에서, 또래 집단의 거부 및 수용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동의 내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또래 집단의 거부 및 수용이라는 매개 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친한 친구의 개인적인 지원은 또래 집단의 거부 및 폭력이 사회적 자신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 본 연구에 참여해준 동안 초등학교와 인덕원 초등학교 아동들과 학부모님 및 연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의 진행을 도와준 정선진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아동학과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 kimy@www.hallym.or.kr

학령기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 중에 하나는 또래 집단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다. 현대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관계망 변화를 살펴보면,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는 발달에 더 중요하고 동시에 더 어려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관계망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혈연관계는 감소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하는 또래 집단의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윤주, 1997).

또래 집단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또래 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또래와 자발적으로 어울리도록 동기화하는 것이다(Asher, Parker & Walker, 1996). 후자는 사회적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된 아동은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또래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어(Egan & Perry, 1998), 결과적으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래 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술의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신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부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자신감이 손상당하게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또래 집단의 거부는 사회적 자신감을 감소시킨다. 자아개념의 핵심부분인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통해 형성된다(Epstein, 1979). 따라서 자신이 또래들로부터 선호되지 못하고 거부되고 있음을 지각하게 된다면, 사회적 자신감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또래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사회적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춘재, 박금주, 2000; Graham & Juvonen, 1998; Hodge, Boivin, Vitaro & Bukowski., 1999). 또래들에게 인

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또래 집단의 부정적인 행동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자신감은 크게 손상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은 낮았다. 셋째, 또래집단의 거부나 폭력과 같은 행동은 아동의 개인적인 행동문제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chwartz, Dodge & Coie, 1993). 위축과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문제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외현화된 행동 문제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얻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신감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친한 친구가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한다고 한다(Parker & Asher, 1993). 친한 친구는 또래의 거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Hodge et al., 1999), 사회적 자신감이 증가하도록 사회정서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Bukowski & Hoza, 1989).

위에서 언급된 각 요인들과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성이 개별적으로는 검증이 되었으나, 이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어떠한 경로로 사회적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인간발달 과정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를 보상해주는 요인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함으로써 발달 과정의 실제모습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자신감이 어떠한 과정으로 손상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지 밝힘으로써,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지는 아동의 지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자아지각을 예언하는 구조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만들고, 이 모델을 기초로 연구 변인들이

서로 어떠한 형태로 관련되어 있으며, 어떻게 사회적 자신감에 기여하는지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informant)들을 활용함으로써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기보고에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시도를 하였다. 사회적 자신감은 아동 자신이 보고하였고, 또래 선호도와 또래 집단의 폭력은 급우의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아동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문제는 부모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각 발달 단계마다 성취해야할 사회적 영역의 발달 과제가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수용 및 동성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유지가 긍정적인 사회적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수(Sullivan, 1953; Buhrmester & Furman, 1986)로 작용하리라 예측된다. 반면에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친밀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아동에 대한 또래 집단의 일방적인 선호나 거부를 나타내는 또래 수용도와 친한 친구와의 이원적인(dyadic) 관계의 질은 서로 다른 구인(construct)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응의 서로 다른 측면을 예언해준다. 또래 수용도는 아동의 부적응적인 측면 그리고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은 아동의 적응적인 측면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Bukowski & Hoza, 1989).

우선 또래수용도와 사회적 자신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또래의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으며, 비효율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이춘재, 박금주, 2000; Graham et al., 1998; Hodge et al., 1999). 물론, 사회적 자신감의 결여가 또래의 거부나 폭력을 초래했는지, 아니면 또래의 거부나 폭력이 자신감을 잃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

렵다. 그러나 두 가지 현상의 부적응적인 순환 작용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Egan & Perry, 1998). 따라서 또래에게 인기가 없거나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와 같이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Shaffer(1994)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부모를 가진 경우가 있다.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한다. 둘째, 다른 형제들과 협조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경험해 본 동생들보다 또래와의 경험이 적은 만이들은 사회적 기술이 결여되어 인기없는 아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역할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밖에 이름이 독특하거나, 체형이 빈약하거나 비만 이어서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우가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상의 세 가지 원인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이 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다수의 연구들이 내면화된(internalizing) 그리고 외현화된(externalizing) 행동문제를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Hodge et al., 1999).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연구(Schwartz et al., 1993)와 종단적인 연구(Hodge et al., 1999)에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울거나, 복종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또래 아동의 폭력적인 행동에 보상을 주게되며,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빈번히 다툼을 유발하는 등의 행동으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기 때문이다(Hodge et al., 1999; Perry, Kusel

& Perry, 1988). 3학년과 5학년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점숙과 유안진의 연구(1999)에서도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 모두 또래 집단의 폭력을 예언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또래집단에 수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자신감이 낮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자신의 행동문제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우,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 자신감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래 집단의 수용 또는 거부와는 별도로 친한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 사회적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오원정, 1999; 이은혜, 고윤주, 1999; Mendelson & Aboud, 1999)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보다는 연령이 많지만, 중학생들이 보고한 친구관계의 질과 Harter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1985)와의 관계를 연구한 Berndt(1996)의 연구를 참고하면, 친구관계에서 사회정서적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아동의 자존감을 측정하도록 Harter(1985)가 제작한 자아 지각 척도의 하위 척도 중에서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행동', '전반적 자아가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친구와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학업능력' 및 '행동'과 부적인 상관이 유의했다. 이는 친구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이 낮은 사회적 영역의 자아지각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친구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은 높은 사회적 자아지각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이 되는 이유는 친한 친구의 지원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되지 않도록 돕거나 또는 또래의 거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하시켜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Hodge와 동료들의 연구(1999) 결과에 의하면,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 문제는 또래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데 기여하지만, 친한 친구를 가진 아동들은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정도가 낮았다. Bagwell, Newcomb, Bukowski(1998)의 장기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5학년 때의 친구관계 유무가 13년 후 측정된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친한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은 사회적 자신감의 손상을 완화할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친구의 지원이, 행동문제로 인해 또래의 수용이 낮아지는 과정에 중재요인이 되는지 아니면 또래의 거부로 인해 사회적 자신감이 낮아지는 과정에 중재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종합하면, 첫째, 또래의 거부나 폭력적인 행동은 낮은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또래집단에서의 거부나 폭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될 것이다. 셋째, 친한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은 또래의 거부나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자신감의 감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가설과 함께, 아동의 행동문제가 사회적 자신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친구의 지원이 어떠한 경로로 사회적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SEM을 통해서 검증해 보았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4-6학년 아동 368명이 참여하였다. 안양 지역 두 곳의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무선으로 선정된 12개 학급의 전체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는 166명, 여자는 202명으로 여아가 다소 많았다. 부모들이 K-CBCL에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면, 90%이상의 아동이 중류층에 속했으며, 친아버지 그리고 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도구

① 행동문제: 아동의 내재화된 행동문제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K-CBCL)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Archenback(1983)에 의해 개발된 CBCL을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1990)가 한국어판으로 개발하여 표준화한 도구이며, 행동 문제에 관한 문항은 0에서 3 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 대상의 부모에게 실시한 결과,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을 포함한 내재화된 행동문제와 관련된 문항들의 Cronbach's Alpha 점수는 .83, 그리고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관련된 문항들의 Alpha 점수는 .8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② 또래의 선호 및 거부: 사회측정적(sociometric) 방법으로 또래에게 선호되거나 거부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아동에게 자신의 급우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그리고 '옆자리에 앉고 싶은' 친구 세 명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친구 세 명을 각각 지명하게 하였다. 또래로부터 선호만 되거나 거부만 되는 아동보다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므로, 선호되는 정도에서 거부되는 정도를 빼서 사회적 선호점수를 산출하는 Coie와 Dodge(1983)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③ 또래집단의 폭력: 한국형 변형 또래지명 설문지(Korean-Modified Peer Nomination Inventory,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2000)를 사용하여 또래 집단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Perry와 동료들(1988)이 제작한 또래지명 설문지(Peer Nomination Inventory)와 국내 연구자료(가우디, 1999;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4)를 기초로 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제작되었는데, 따돌림이나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와 강압에 의해서 피해 당하는 급우 및 가해하는 급우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다. 피해자에 관한 일곱 개 문항의 Alpha 점수는 .90이었다.

④ 친구의 지원: 친구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령기 아동용 친구관계의 질 척도(이은해, 고윤주, 1999)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Mendelson과 Aboud(1999)의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와 아동 면접 자료를 기초로 한국 아동들에게 맞게 개발된 것이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9가지 하위 영역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친구의 지원에 해당되는 6가지 하위 영역(동료관계의 자극, 도움, 신뢰, 정서적 안정, 인정, 친밀감)의 24문항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4점 평정 척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 대상에게 실시했을 때 Alpha 점수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④ 사회적 자신감: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신의 지각은 Harter 척도(1985)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초등학교 3~6학년용 자아지각 척도(이은해, 신숙재, 송영주, 199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여섯가지 하위영역 중 사회적 자아지각을 측정하는 여섯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Harter의 척도에서 이 하위 척도는 "social acceptance"로 명명되지만, 문항 내용은 아동 자신이 '친구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 '다른 애들과 잘 어울리는지 또는 아닌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지 또는 아닌지', '친구를 잘 사귀는지 또는 아닌지' 등에 대해 평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하위 척도의 점수가 높다면,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Egan과 Perry(1998)도 같은 척도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 측정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 대상에게 실시한 결과 Alpha 점수가 3-4학년용 척도는 .74, 5-6학년용 척도는 .69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다.

절차

연구에 참여했던 두 초등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선정된 학급별 아동의 명단을 받은 후 사전 훈련된 검사자 6명이 방문하여 각 학급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들에

게 급우와 자신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비밀로 할 것임을 주지시켰고, 응답이 끝난 후 부모용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부모가 응답한 질문지는 일주일 후 아동들을 통해서 회수되었고, 결과분석이 끝난 후 각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결과를 부모에게 우편으로 알려주었다.

분석 방법

결과의 분석에서,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선호는 동성 급우들에 의해서 '긍정 지명된 수'에서 '부정 지명된 수'를 뺀 점수를 학급별로 z점수화하였다. 또래 집단의 폭력 점수는 전체 급우의 수에서 피해자로 지명된 수의 백분율을 계산하였다.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은 각 하위 척도에 속한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자신감과 다른 연구 변인들과의 관련 정도는 SPSS/pc+ 8.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 변인들에서 성차와 학년차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성차와 학년차를 통제된 부분상관을 산출하였다. 한편, 변인들간의 관련 모형은 SEM을 통해서 점검되었는데, AMOS 3.61(SEM with maximum likelihood, Arbuckle, 1995)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SEM의 적합도(goodness of fit)는 모델의 두 가지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는 '절대적인 적합도(absolute fit)'이고, 다른 하나는 '증가하는 적합도(incremental fit)'이다(Hoyle & Panter, 1995). 절대적인 적합도로는 χ^2 , GIF (Goodness of Fit Index)등이 있는데, 이 지수들은 검증될 모델에 포함된 모수(parameters)들 간의 공변량 값들과 관찰치들의 공변량 값들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절대적인 적합도인 χ^2 의 가장 좋은 수치는 0이며, 이 수치가 증가할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 수치는 '적합하지 않은 정도(badness of fit)를 나타낸다. 한편, 증가하는 적합도로는 IFI, CFI 등이 있으며, 이 수치는 검증될

모델들이 대안적인 모델에 비해 관찰치를 재생산하는데 어느 정도나 우월한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적합도들은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goodness of fit)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90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Hoyle과 Panter(1995)는 결과를 제시할 때 절대적인 적합도 지수는 하나 이상, 증가하는 적합도는 두 개 이상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χ^2 , IFI, CFI를 산출하였는데, 이들은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상적인 지수로 알려져 있다(Gerbing & Anderson, 1993; Hoyle & Panter, 1995).

결 과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된 변인들

아동의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 '사회적 선호도', '또래집단의 폭력',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의 성차와 학년차를 중다변량분석(MANOVA)을 통해서 검증한 결과 성차($F(6,359)=4.69, p=.000$)와 학년차($F(12,718)=2.02, p=.020$)가 모두 유의했다. 따라서 각 변인들간의 관련정도를 성차와 학년차를 통제된 부분상관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표1>을 참고하면, 사회적 자신감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결과를 해석하면, 첫째,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많고 거부가 적은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은 높았다. 반면, 또래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은 낮았다. 따라서 또래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또래집단의 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스스로도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불안, 우울, 위축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이 낮았다. 그러나 외현화된 행동문제와 사회적 자신감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사회적 선호와는 부적상관이 또래 집단의 폭력과는 정적

표 1 학년과 성을 통제한 부분 상관

| | 사회적 자신감 | 내면화된 행동문제 | 외현화된 행동문제 | 사회적 선호 | 또래집단의 폭력 | 친구지원 |
|-----------|------------|--------------|--------------|-----------|-------------|------|
| 사회적 자신감 | 1.00 | | | | | |
| 내면화된 행동문제 | -.14** | 1.00 | | | | |
| 외현화된 행동문제 | .06 | .58*** | 1.00 | | | |
| 사회적 선호 | .26*** | -.12* | -.23*** | 1.00 | | |
| 또래집단의 폭력 | -.19*** | .18*** | .18*** | -.47*** | 1.00 | |
| 친구 지원 | .26*** | -.13** | -.07 | .19*** | -.11* | 1.00 |

*p<.05 **p<.01 ***p<.001

상관이 유의한 점을 고려하면,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사회적 자신감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기 보다는 또래의 거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한 친구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사회적 자신감이 높았다. 한편, 친구의 지원은 내면화된 행동문제 및 또래 집단의 폭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사회적 선호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의 지원이 불안과 위축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 문제를 줄임으로써 또래의 거부를 낮추고 사회적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가능성과, 또래의 거부로 인한 사회적 자신감의 감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가능한 경로를 좀 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분석의 다음 단계에는 SEM을 적용하였다.

2.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 모형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된 변인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모델을 구성하고 검증해보았다. 우선,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행동문제'라고 명명된 잠재 변인으로 묶었고, 사회적 선호와 또래 집단의 폭력은 '또래 수용'이라는 잠재 변인으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그림1>을 설명하면, 관찰 변인은 사각형으로 제시되고, 잠재변인은 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모델1(<그림1> 참조)은 기본모델로, '행동문제'가

'또래 수용'과 관련되고, '또래 수용'은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됨으로서 '행동문제'와 '사회적 자신감'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고 있다. 그리고 '친구의 지원'은 '또래 수용'과 '사회적 자신감'의 관계를 증대하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모델1에 나타난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고(<그림4> 참조), <표4>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χ^2 값이 유의하지 않았고, IFI와 CFI 모두 .98로 높게 나타났다.

모델2(<그림2> 참조)는 기본 모델에 '행동문제'와 '사회적 자신감'의 직접적인 관계(①번 선)를 첨가한 모델로, '행동문제'가 '또래수용'을 낮춤으로서 '사회적 자신감'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래수용'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도 관련되는 지를 검증하는 모델이다. ①번 경로($r=-.0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모델2의 적합도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모델1과 비교할 때 더 나아지지 않았다. SEM의 분석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첨가될수록 모델의 적합도는 좋아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전 모델의 적합도와 비교해보고 χ^2 값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단순한 이전의 모델을 받아들여도록 권장한다(Arbuckle, 1995). <표4>에 제시된 것처럼, 모델2는 모델1에 비해 자유도가 하나 감소하였는데도 χ^2 값은 0.33밖에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적합도는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행동문제가 사회적 자신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는 모델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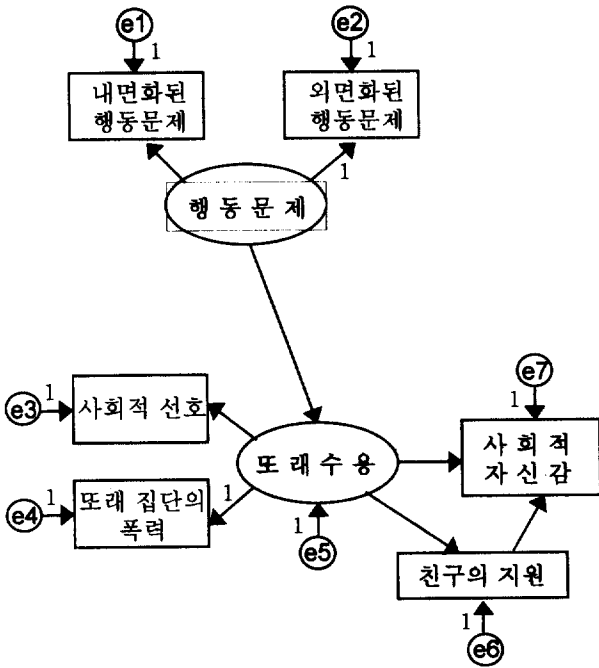


그림 1 행동문제, 또래수용, 친구지원, 사회적 자신감 간의 관련모델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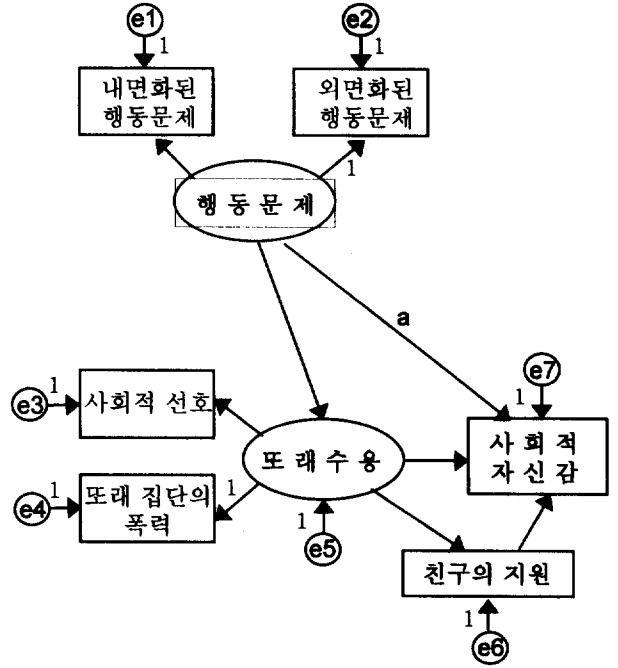


그림 2 행동문제, 또래수용, 친구지원, 사회적 자신감 간의 관련모델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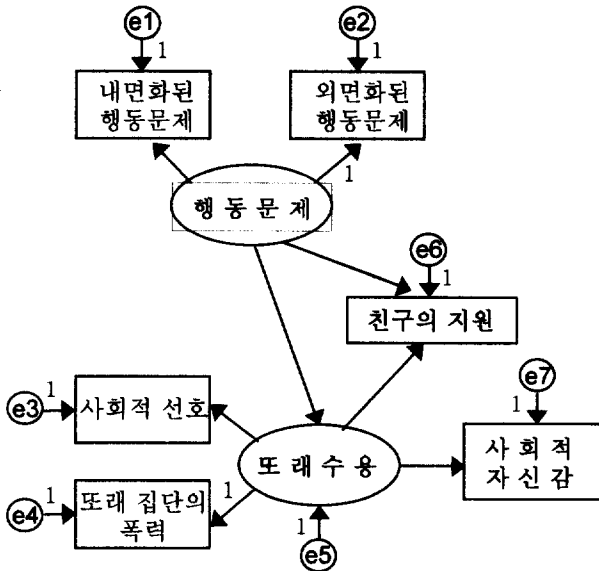


그림 3 행동문제, 또래수용, 친구지원, 사회적 자신감 간의 관련모델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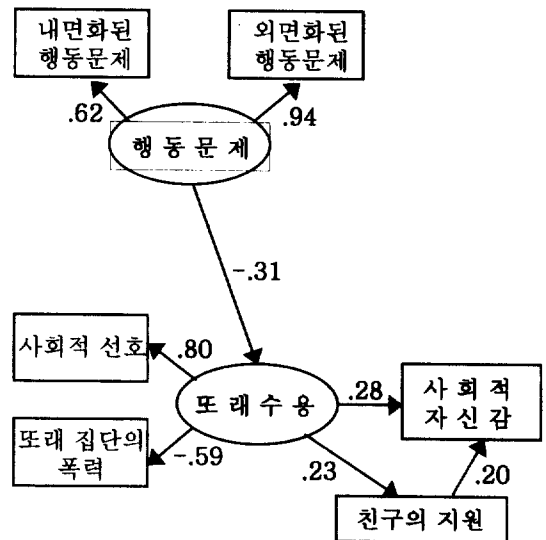


그림 4 행동문제, 또래수용, 친구지원, 사회적 자신감 간의 관련모델 I의 결과

모델3(<그림3> 참조)은 '친구의 지원'이 '또래 수용'과 '사회적 자신감'의 관계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문제'와 '또래수용'의 관계를 증대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모델이다. '행동문제'와 '친구의 지원'간의 관련($r = -.10$)은 유의하지 않았고 적합도는 유의하게 나빠졌다. 모델1의 적합도와 비교할 때, 자유도는 같은 상태에서 χ^2 값이 14.45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친구의 지원'이 '행동문제'로 인한 '또래수용'의 감소를 증대한다는 모델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행동 문제'는 '또래수용'과 관련되고, '또래수용'은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되는 경로가 검증되었고, '친구의 지원'은 '또래수용'과 '사회적 자신감'의 관계를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부분상관을 산출했던 이전의 분석과 상치되는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사회적 자신감' 그리고 '내면화된 행동 문제'와 '친구의 지원'간에 유의했던 상관관계가 SEM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사회적 자신감' 또는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친구의 지원'간의 관련이 '또래의 수용'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상관을 측정할 때 마치 그들간의 관련성이 유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둘째,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사회적 자신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SEM분석에서는 '또래 수용'이라는 매개 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맺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현화된 행동문제'가 '사회적 자신감'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SEM의 결과(<그림4> 참조)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또래 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 즉 또래들로부터 선호되지 못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래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은 높은 경향이 있었고, 인기가 없거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친구의 지원은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이 사회적 자신감을 잃게될 때 그 정도를 완화하는 변인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사회적 자신감의 14%를 설명하고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와의 부적응 상황에서 사회적 자신감이 손상되게되는 경로를 밝히고,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이 검증되었다.

첫째, 또래의 거부나 폭력적인 행동이 사회적 자신감의 손상과 관련될 것이라는 가설은 증명되었다. 부분상관 계수와 SEM에서 또래에게 인기가 없을수록 그리고 또래 집단의 폭력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신감이 또래 폭력의 종속변인이 아니라 독립변인이라고 주장한 Egan과 Perry(1999)의 단기 종단적 연구에서도 또래의 폭력이 사회적 자신감이 떨어지게 한 요인이었다는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또래 집단에서의 부적응과 사회적 자신감의 손상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순환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모델의 적합도 지수

| | χ^2 (df) | p | IFI | CFI |
|------------------------|---------------|------|-----|-----|
| 모델1: 기본 모델 | 12.14 (7) | 0.10 | .98 | .98 |
| 모델2: 모델1에 a 선을 첨가한 모델 | 11.81 (6) | 0.07 | .98 | .98 |
| 모델3: 친구 지원의 경로를 변경한 모델 | 26.59 (7) | 0.00 | .94 | .94 |

한편, 또래의 거부를 '사회적 선호도'로 측정하는 것은 다소 혼동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또래의 거부 정도는 또래집단 내에서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사회측정적 방법을 통해서 산출되는 '사회적 선호도' 점수를 통해서 측정되었는데, 이 점수는 좋아하는 친구로 지명된 수에서 싫어하는 친구로 지명된 수를 뺀 점수이다(Coie & Dodge, 1983).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아동들은 다양한 반면 거부되는 아동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사회적 선호 점수는 '거부'보다는 '선호'를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싫어하는 친구로 지명된 수'만을 또래의 거부 점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또래 집단에서 거부되는 정도가 유사하더라도 선호되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자신감은 다를 것임으로 사회적 선호 점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둘째, 아동의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또래집단에서의 거부나 폭력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된 것이라는 가설은 증명되었다. 부분상관계수만을 참고로 하면, 내면화된 행동문제는 사회적 자신감과 직접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사회적 자신감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가능성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SEM을 함께 고려하면, 내면화된 행동문제와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모두 또래 집단에서 수용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자신감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동문제가 사회적 자신감의 손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불안 또는 위축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 자체로 인해서 사회적 자신감이 낮아지기보다는 또래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사회적 자신감이 낮아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또래의 거부나 폭력을 당하는 피해 아동들을 중재할 때,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친구를 돕도록 급우들을 교육하는 일도 중요함을 알려준다.

셋째, 친한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은 또래의 거부나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자신감의 감소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증명되었다. SEM에서 '친한 친구의 지원'은 '또래수용'과 비슷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지원'이 행동문제로 인한 또래의 거부를 중재하는지, 아니면 또래의 거부로 인한 사회적 자신감의 감소를 중재하는지 검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행동문제로 인해서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것을 친구가 막아주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구가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가능하게 보인다. 따라서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친구의 지원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 본 연구의 결과가 참고로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친한 친구는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Hodge와 동료들(1999) 그리고 Boulton, Trueman, Chau, Whitehand, Amatya (1999)의 '친구의 보호 가설(friendship protection hypothesis)'과는 거리가 있다. 친한 친구를 가진 아동은 이후에 폭력을 당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단기 종단적 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는 친한 친구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친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두 선행 연구의 결과와 상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친구의 역할은 보호보다는 자신감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추후 연구와 중재프로그램에 실제로 적용해봄으로써 더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가설이 모두 긍정적으로 증명되었으나, 또래의 수용과 행동문제 그리고 친구의 지원은 사회적 자신감의 14%밖에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 변인들의 설명력이 높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자신감은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Elicker & Sroufe, 1992)와 사회적 능력(Epstein, 1979)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설명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사회적 자신감에 관련된 모든 변인이 아니라 부적응적인 측면과 관련된 변인들에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동 집단에는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보다는 적응을 잘하고 있는 아동이 많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할 경우 부적응 행동의 변량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 연구 결과를 정상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또래집단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아동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일부 대상만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제한점은 횡단적인 연구이며 상관 연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연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련 형태를 밝히는 것이었다. 변인들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일과 연구 결과를 중재 프로그램에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일은 추후의 일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안양의 초등학교생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안양이 수도권에 속하고, 신홍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타지역의 중류층 아동들에게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또래 집단의 거부 및 수용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동의 내

면화된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또래 집단의 거부 및 수용이라는 매개 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적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친한 친구의 개인적인 지원은 또래 집단의 거부 및 폭력이 사회적 자신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참고 문헌

- (주)가우디(1999). *왕따 리포트*. 우리교육, 서울.
- 고윤주(1997).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이 지각한 자신의 사회관계망: 자녀와 부모 세대간에 나타난 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16.
-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2000). 한국형 변형 또래지명 설문지 개발에 관한 연구(인쇄중).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1990). *한국어판 아동행동조사표*. 서울: 하나의학사.
- 오원정 (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은혜, 신숙재, 송영주 (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6.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이점숙, 유안진 (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춘재, 광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79.
-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4). *매맞는 아이들*.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8.
- Arbuckle, J. L. (1995). *AMOS users guide*.

- Chicago: Smallwaters.
- Archenback, T.(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sher, S. R., Parker, J. G., & Walker, D. L. (1996). Distinguishing friendship from acceptance: Implications or intervention and assess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66-40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s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lton, M. J., Trueman, M., Chau, C., Whitehand, C., & Amatya, K. (1999). Concurrent and longitudinal links between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Implications for be-friending interv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2, 461-466.
- Buhrmester, D. & Furman, W. (1986). The changing functions of friends in childhood: A Neo-Sullivanian perspective. In V. J. Derlega and B. A. Winstead (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pp. 41-62). New York: Springer.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pp.15-45). In T. J. Berndt, & G. W. Ladd, (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71-94). New York: Wiley.
- Coie, J. D., & Dodge, K. A.(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tatus: A five year longitudinal study. *Merill-Palmer Quarterly*, 29, 3, 261-282.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 of Linkage* (77-106).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Gerbing, D. W., & Anderson, J. C. (1993). Monte Carlo evaluations of goodness-of-fit indice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Sage.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87-599.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Hodge, E. V. E.,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1.

- Hoyle, R. H., & Panter, A. T. (1995). Writing abou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Sage.
- Mendelson, M. J., & Aboud, F. E. (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Parker, J.G., & Asher, S.R. (1993). Friendship an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Schwartz, D., Dodge, K. A.,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haffer, D. R.(1994).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Pacific Grove, Ca: Brooks/cole.

Contribution of Behavioral Disturbance,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to the Self-Perceived Social Competence in Korean Elementary-School Children

Yun-Joo Koh

Youngshin Kim and Joosun Noh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Dept. of Psychiatry
Hallym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lf-perceived social competence (SSC) is one of the important mediating factors of social adapta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investigate contributing variables in the formation of SSC in 4-6th graders of two elementary schools in AnYang City using multiple informants. The participants completed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riendship Quality Scale, Korean Modified Peer Nominating Inventory (K-MPNI) and Peer Rating Scale measuring social-preference. Parents of the subjects completed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Partial correlation and SEM were performed, controlling sex and grade. Social-preference scores and support from the best friend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SC. Internalizing behavioral disturbances and the degree of victimization of school bullying were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SSC. SEM revealed that behavioral disturbances including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were related to negative SSC indirectly via low peer-acceptance which is composed of social preference and victimization by peers. Support from the best friend was a protective factor, preventing negative impact of low social acceptance on SSC.